

삶의 힌트

이즈키 히로유키 (일본 소설가)

(2) 즐거다

# 즐거움 찾아내는 삶... '즐거움 기' 발산 타인에 전염

일전에 요코야마 류이치 씨를 오랜만에 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코야마 류이치 씨는 두말할 것 없는 일본 만화계 최고의 원로입니다. 세간의 상식으로 말하면 요코야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겠지요. 그의 대표작 <후쿠짱>은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작입니다.

요코야마 씨는 85세를 넘었음에도 항상 수줍어하는 표정과 호기심과 장난기 가득한 눈빛 때문에 마주하면 늘 소년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년 같은'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분도 드물지 않을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체구는 작지만 시원시원한 결을걸이, 나이에 걸맞지 않은 빠른 말투의 요코야마 씨는 언제나 활달하고 식도락을 즐기는데, 주랑도 소싯적 못지않게 여전히 엄청납니다.

저는 줄곧 요코야마 씨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단순하고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코야마 씨를 동경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는 100세 이상의 장수자가 560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장수는 드문 일이 아닌 셈이죠. 아니, 오히려 이 시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 좋은 삶은 '장수할 수 밖에 없는'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이유는 요코야마 씨가 '때일을 즐겁게 사는 달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명인'이라고 하면 조금은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요코야마 씨에게는 '달인'이나 '무엇이든 잘 한다'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그는 언제나 털털하고, 조연하고, 즐기고 싶어하고, 결코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말이지요. 저처럼 버릇 없는 후배에게도 친구처럼 솔직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요코야마 씨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코야마 씨보다도 훨씬 오래 알고 지낸, 훌륭한 인품을 지닌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요코야마 씨의 삶의 방식에 깊이 감화된 걸까요.

꿈꿈이 생각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요코야마 씨가 언제나 '즐거움 뜻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요코야마 씨 본인이 주변사람들에게 풍기는 '즐거움 뜻한 기색'을 저는 동경했던 것입니다.

요코야마 씨와 만나 웃고 떠들고 있으면 저는 신비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색'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일단은 '즐거워 보이는 기의 흐름'이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순진한 장난꾸러기처럼 눈동자를 빛내며 하는 이야기의 재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의 손짓, 몸짓을 통해 흘러 나오는 '즐거워 보이는 기의 흐름'을 저는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와 수다를 떨고 있는 사이에 저는 차츰 명량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의 활기가 저에게 전염되더라도 한 것처럼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세계의 그 어떤 바이러스트보다 더욱 감염력이 강한 파동입니다.

요코야마 씨가 지닌 '즐거움의 기'가 마치 소리굽쇠처럼 공진해 주변으로 퍼지는 느낌은 정말이지 신비한 체험입니다.

언젠가 한번은 "한참 오래전 일인데..."라고 은밀한 비밀을 털어 놓듯 요코야마 씨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 남의 집 담 너머로 꽃씨 뿌리는 사람

"가마쿠라 자택에서 역까지 걷는 그 시간이 너무 무료해서 뭔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어.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곧바로 여러 종류의 꽃씨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는 역을 오갈 때마다 길가의 멋진 저택 정원에 씨를 꺼내서 뿌렸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담장 너머로 몰래 말이야. 그랬더니 정원에서 채송화랑 해바라기 씨이 돌아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 후에는 진짜 예쁜 꽃이 피었지. 얼마나 재미있던지, 기분이 좋았어."

진부하지만 가마쿠라를 떠올리면 격조 높은 고급 저택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손질된 고풍스러운 정원 여기저기에 어느 순간 들꽃이 느닷없이 출현하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유쾌합니다. 저택의 정원사들도 틀림없이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입니다.

"이것 봐, 나는 키가 작잖아. 그래서 가끔은 있는 힘껏 뛰어올라 담 너머로 씨앗을 던져야 했어. 누가 보면 어쩌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있는 힘껏 뿌렸지. 덕분에 역과 집을 오가는 길이 지루하지도 힘들지도 않았어. 어떻게 꽃이 필까, 집주인이 발견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 해도 흐뭇해져서 말이야."

꽃 도둑은 죄를 묻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남의 정원의 나뭇가지를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멋대로 꽃을 피우게 하는 게 풍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내는 요코야마 씨의 자세에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도 탄복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생관이나 사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코야마 씨는 시코쿠 도사의 고치 출신입니다. 고치는 구로가네 히로시라든가 하라타이라 같은 인기 만화가가 배출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인기 만화 <푸상>의 작가이자 <황거 앞 광장> 등 다수의 사회 만평으로 한 시대를 앞장섰던 요코야마 다이지 씨 역시 고치 출신입니다. 그는 요코야마 류이치 씨의 남동생이기도 하죠.

저는 작년에 도사의 고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 여성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실감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여성들을 일컬어 '하치킨'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들은 술도 세고 부지런하며 달변가에



“몸상태 좋지 않아도 40여년간 병원 간 일 없이 ‘즐거움 기’ 발산하는 사람 만나 그 ‘기’를 나누어 받는데 치료법”

존재주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명량하고 결단력이 있고 매사에 태평합니다. 그러나 제가 즐거운 '뜻이'라든가 즐거운 '뜻한 기색'이라는 식으로, 주의 깊게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에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품은 근심도 있고, 또 혼자만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대 보라 두 두 눈의 빛깔/말하지 않으면 근심이 없는 듯하니"

옛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마도 선(禪) 스님의 말씀일 겁니다. '불어사무수(不語似無愁)'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기조(基調) 저음(低音)입니다. 한국의 '한(恨)', 러시아의 '토스카'가 이와 유사한 색조를 띤 어휘입니다. 메이지 시대의 문학가 후타바테이 시메이는 '토스카'를 '울적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의미를 너무 단순하게 파악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보다는 '암수(暗愁)'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1889년, 당시 22세의 청년 나쓰메 소세키는 보소 여행 중 쓴 기행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안의 달 검고 암수 생겨나니"

'암수'란 단어는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일본인은 헤이안 시대부터 '암수'라는 말을 즐겨 썼으며, 어원의 분국인 중국 이상으로 사랑해왔다고 합니다. 고지마 노리유키 선생의 <말의 무게>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각각 '암수'를 품

고 사는 게 아닐까요. 혹은 마음에 무겁고 깊은 슬픔이나 근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수록 반대로 '즐거움'을 강하게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만사태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생로병사의 네 글자에 '고(苦)'를 덧붙인 것은 중국의 승려라고 합니다만, 고대 인도에서는 '고'의 의미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에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떤 가정에 태어날까? 어떤 피부색이나 머리색을 갖고 태어날까? 음악적 재능이 풍부할까, 스포츠에 적합할까? 의지가 강한 아이일까, 아니면 타고난 병약한 타입일까, 어느 것도 생각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꿀'

유전자 하나만 봐도 인간의 노력과 향상심으로 '생각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까? 어떤 형제 자매를 갖게 될까? 체형이나 성격은 어떤까? 생각할수록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말이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이'입니다.

태어난 후에도 문제는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병'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료 기술이 진보했다고 하지만 병을 생각대로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의 첫 번째 목록일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죽는 것조차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랫동안 친숙해진 자기 집 거실에서 조용히 정원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제는 좀처럼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좁고 지저분한 병실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최후에는 여러 기구나 인공호흡기 등을 매단 채 생사를 수십 번이나 넘나들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광경이 지금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에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옛 인도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기본적인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치 그렇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결코 그 네 가지만은 아닙니다. 천재(天才)의 무게를 지금 우리들은 운운으로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이 부지런히 쌓아 올린 생활이란 것이 사실은 너무나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사람의 생명 역시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속에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몇 번이나 썼지만, 아나기타 구니오 씨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지친 마음을 달래고 따뜻하게 하는 것에 문예의 본질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 수단은 다양합니다. 사치스럽고 호사로운 것을 즐기기도 하고, 스케치를 하거나 하이쿠나 선율을 짓는 우아한 즐거움도 찾습니다. 경마장에서 마권을 사지 않은 채 그저 말이 달리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라오케에 푹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온천, 여행, 스키투어, 쇼핑, 독서, 연극이나 콘서트에 가는 것도 모두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활기를 불어넣고 위로하려는 인간의 애절한 본능이 작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란 성인은 여덟 번씩 딱딱한 인상을 풍기지만, 사실은 상당히 인간미가 넘치고 세정(世情)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전초>라는 오래된 책 속에 다음과 같은 신란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술은 망우(望憂)의 또 다른 이름이니, 이것을 권하고 웃는 만큼 위로받는다"

예로부터 술은 근심을 잊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술은 근심을 없애는 빗자루'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마음의 시름을 버리는 곳'이라는 고가 가사도, 미소라 히바리의 '슬픈 술' 멜로디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정말 즐거운 기분을 갖기 위해서는 술의 힘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무리이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즐거움 기'를 발산하는 '즐거움의 달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위에 풍기는 '즐거움 기'를 사위하듯이 전신에 뒤집어쓰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슬픔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전염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기'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굳고 모공까지 막혀버려, 모처럼의 '즐거움 기'가 전해지려야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52년에 수험 때문에 필드컷 촬영을 한 이후 치과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한 번도 정식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작작년 가을에 생각지도 못한 하혈을 했을 때도 고집을 부려 제대로 된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묘하게 이명이 생겨서 관란을 겪고 있습니다. 복통이나 오심전으로 고통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일전에는 편도선으로 부어서 40도 가까이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치하고 지내왔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큰 병을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병원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때로 요코야마 류이치 씨 같은 '즐거움의 기'를 발산하는 사람과 만나 그 '기'를 나누어 받는 게 바로 저만의 치료법입니다.

정리-니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이즈키 히로유키가 쓴 <삶의 힌트>(지식연행)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손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